

●●● 정기홍 농업회사법인 (주)마니커원종 대표이사

원종계 사업 출발로 새로운 기대



중계생산성 저하 등으로 지난해 141,600수가 수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 부족 사태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주)마니커는 자회사 (주)마니커원종을 설립하여 청정지역생산을 통한 병아리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원종계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국내 양계 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마니커사업과 함께 걸어오면서 (주)마니커원종 대표이사로 부임한 정기홍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세부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기홍 (주)마니커원종 대표이사

마니커, 인생의 동반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전공한 정기홍 대표이사(만51세)는 학과 졸업 후 이천에 위치한 대상연구소에서 6개월간 근무했고, 1982년도 축산시험장 가금과와 양돈과에 재직하는 동안 양돈 육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1984년 천호그룹의 마니육종에서 육종관리를 총괄하는

동안 가금육종학 박사과정을 취득하였고, 가금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육종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담당한 바 있다. 1993년 대상이 천호그룹을 인수하면서 경기도 이남지역 중부사업부를 담당하였고, IMF 이후인 1998년 대연식품이 천호그룹을 인수하면서 (주)마니커로 거듭 태어났다. 이 시기에 충남 당진에 2~3만수의 대호지농장을 위탁경

영하면서 종계를 납품받아 병아리를 공급한 경험으로 현재에도 당진에서 유일축산으로 3만 수 가량 종계업을 경영하면서 질병없는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육종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원종계사업 추진계획

(주)마니커원종은 지난해 11월 30일, 12월 1일자로 프랑스 하바드사의 하바드플렉스 (Hubbard Flex) 품종 원종계 1만5천수를 수입하였다. 경북 예천과 문경, 충북 괴산 등 3개 지역에 성계농장을 두어 1월 25일 법인등록을 마치면서 원종계농장파트와 부화파트로 나뉘어 각각 15명내외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원종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월에 입식된 원종계군은 4월 중순 경 성계사로 이동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종계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계장은 한 지역에만 몰려있어 품질부분에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상북도 지역내에는 원종계장이 없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원종계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았고, 종계 부화장과 성계농장을 추가 설립 구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매출액은 40억원, 경상이익 1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연간 두차례 물량을 수입하여 130만수의 정상적인 종계생산이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자체 분양공급과 함께 하바드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 종계수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원종계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청정지역 조건과 기술을 더해 깨끗한 종계 생산에 목적을 두고, 육계 계열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주)마니커 사무실



한 이번에 수입하는 하바드 플렉스 품종은 종계성이 좋고, 병아리의 강건성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 마니커원종의 사업을 하는데 육계 품질관리와 수급조절, 원가절감 등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으로 탄탄한 결실 맺길

(주)대연식품이 창립된 1985년 11월 11일은 우연히도 정 대표이사의 결혼기념일이다.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양계육종과 관련된 직종에 몸담고 있으면서 마니커사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여줬다.

정기홍 대표이사는 마니커가 생겨나면서부터 중사한 토박이라고 볼 수 있다. 육종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마니커원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쏟고 있다. 이번 설립을 계기로 원종계 육종경영을 토대로 관리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일반농가에 보탬이 되어주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리 | 장성영 기자)